

육식의 종말

“곡물로 키운 소의 고기는 불에 탄 산림, 침식된 방목지, 황폐해진 경작지, 말라붙은 강이나 개울을 희생시키고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을 허공에 배출한 결과물이다.”

충격 그 자체다. 이 책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육식 문화’의 이면에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사건들이 숨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책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육식 문화, 특히 쇠고기에 집중되는 음식 문화와 이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논한다. 또한 선진국의 육류 중심의 식생활을 위해 파괴되는 환경과 굶주리는 제3세계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인간과 소의 유구하고 복잡한 관계라는 매력적인 주제에 관한 가장 흥미롭고 읽을 만한 작품이다. 저자인 리프킨의 천재성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었는지 명약관화하게 입증해 보이는 그의 능력에 있다.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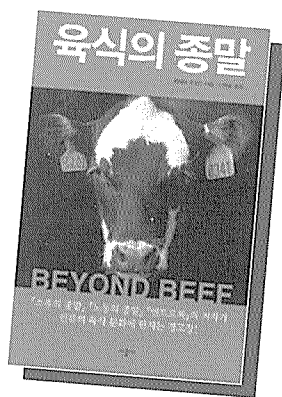
제러미 리프킨의 문제의식과 천재성

인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지에 생명을 불

어떻게 곡식을 자라게 하고, 죽어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간을 공양하던 충직한 가축인 소. 이러한 소가 지구 전체 토지의 24%를 차지하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 치운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사육을 위하여 지구의 허파로 불리던 열대우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배출하는 분노에서 발생하는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를 먹이기 위한 곡물 사료의 재배로 인하여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반면 한편에서는 육식 문화의 결과인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로 많은 사람이 심장병, 당뇨병, 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인류사에 널리 퍼져 있는 육식 문화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축산업의 성장 배후에 얼마나 많은 권력과 자본의 악행이 숨어 있는지를 고발한다.

단지 현대의 병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라스코 동굴 벽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수메르 궁전의 도축장과 같은 방대한 고고학적 자료, 그리고 축산업의 역사 등 풍성한 사료를 추적해 육식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점이 돋보인다.

오늘도 아이들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어른들은 밤거리에서 고기를 구우며 친구들과 술잔

을 기울인다. 리프킨은 이러한 일상의 단면 뒤에 숨어 있는 진실들에 주목한다.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첫 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는 제3세계의 현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파괴로 서서히 죽어 가는 아이들. 리프킨은 이러한 현상을 '차가운 악(cold evil)'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사회는 강도, 살인,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비난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합법화된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어찌해야 하는지?

이러한 차가운 악은 기술과 제도의 허울 속에 몸을 숨기고 서서히 우리를 질식하게 한다. 계몽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온 세계를 뒤 흔들었던 산업혁명의 기계 소리 이면에는 소외받은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이 있었고, 지금도 지구를 뒤덮고

있는 공해로 물 한 모금, 심호흡 한 번조차도 걱정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저자는 육식의 종말을 통하여 행복한 지구가 만들어질 것을 확신한다. 동시에 '인공적인 단백질 피라미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 준다.

지구 환경과 인류 공존에 대한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직접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대륙의 자연을 대대적으로 회복시키는 생태계적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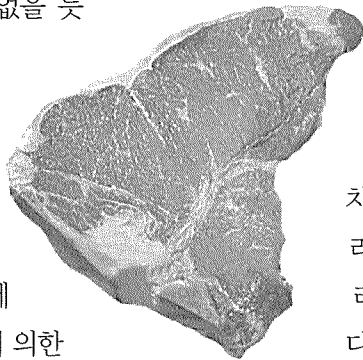
「육식의 종말」 / 인터넷 블로그 베스트

함께 살아가는 길에 대한 결코 작지 않은 고민

제레미 리프킨, 그는 진정한 저널리스트 인 듯하다. 다방면에 걸친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나는 그의 천재성을 의심하곤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역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안에 녹아있는 교양의 무게감이 날 짓누른다.

현대사회의 문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비판의 메시지가 이번엔 인류의 육식문화에까지 이르렀다. 표지에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의 사진은 마치 인류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건강을 위해서는 육식보다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육식의 종말을 논하는 이는 아마도 제레미 리프킨 밖에 없을 듯하다.

어쩌면 이 책은 쇠고기의 역사이자 소 목축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미국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인디언에 대한 백인의 핍박 역사는 소에 의한



버팔로의 멸종과 너무도 흡사해 보였다. 과거 인간이 거주하던 땅이 고작 소를 위해 비워져야만 한다는 사실 속에서 -물론 모든 생명은 귀중하고 소 역시 그 점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씹쓸함을 느낀다. 게다가 수많은 인구가 여전히 가난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소를 위해 무수히 많은 곡식들이 재배되고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인 듯하다.

몇몇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인구에 비하면 너무도 많은 소의 비율은, 인간이 소를 목축하는 것이 아닌 소에 의해 인간이 사육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소를 신성시 하고 섬기는 문화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류는 소를 보호하다 못해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가 지닌 생명의 존엄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듯 했다. 즉, 소의 신성성으로 인하여 감히 살생치 못해 놔두는 것이 아닌, 인류의 먹을거리로서 이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육성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듯하다.

과거 백정 등에 의해 자행되었던 소 도축 과정 속에서 인류는 살생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에 많은 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것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 소의 도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기기에 의해 부위별로 잘려지고 포장되어 나오는, 절대 소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상품'을 인간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스웠던 것은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노동의 종말'을 통해 이야기했던 일자리의 감축으로 인한 실업 현상 속에서 낮은 임금은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시될 수 없을 듯 했다.

미 농무부(USDA)에 의한 영터리 검사 과정은 쇠고기를 즐기는 수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의 건강에 대한 '나 몰라라' 식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메탄과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목초지를 망가뜨리는, 환경 전체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소를 그토록 신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참 의아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때론 부패하고 각종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고 더 나아가 쥐나 그 외의 설치류들과 영키고 섞힌 고기가 권력과 힘, 부를 상징하는 아이러니함이 녹아 있었다.

겉은 바삭 타고 속에는 여전히 피가 흥건하고 인 쇠고기를 씹음으로 인하여 인류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할 수 있었고, 그것은 직접적인 권력과도 이어지는 듯 했다.

나치에 의해 점령당해 어쩔 수 없이 채식으로 연명해야 했던 덴마크인의 건강이 오히려 증진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는 육식의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인류의 계속되는 진보를 위해, 인류가 살아갈 '지구'라는 환경 터전을 위해 육식의 종말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린다.

이미 너무도 오래전부터 고기에 길들여져 있는 동시에 부의 상징으로서 쇠고기를 찾는 인류이기에, 그 연결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끊음 없이 육식의 종말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거지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인류와 동물의 공존에 대한 물음은 그 과정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육식문화가 지닌 권력구조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북반구 몇몇 부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땅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제3세계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너무 배불러 죽어가고 누군가는 너무 굶주려 쓰러지는 이 현실,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하나의 모순점은 육식의 종말과 함께, 현존하는 소들이 과거 존재했던 코요테, 늑대, 스라소니 등으로 대체해가는 과정 속에서 육식문화와 함께 종말을 맞이해야만 한다.

그것은 제레미 리프킨의 충고를 넘어선 강력한 경고를 피하기 위한 길이며 동시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타자에 대한 작은 배려의 출발점일 것이다. ㉞